

30

요단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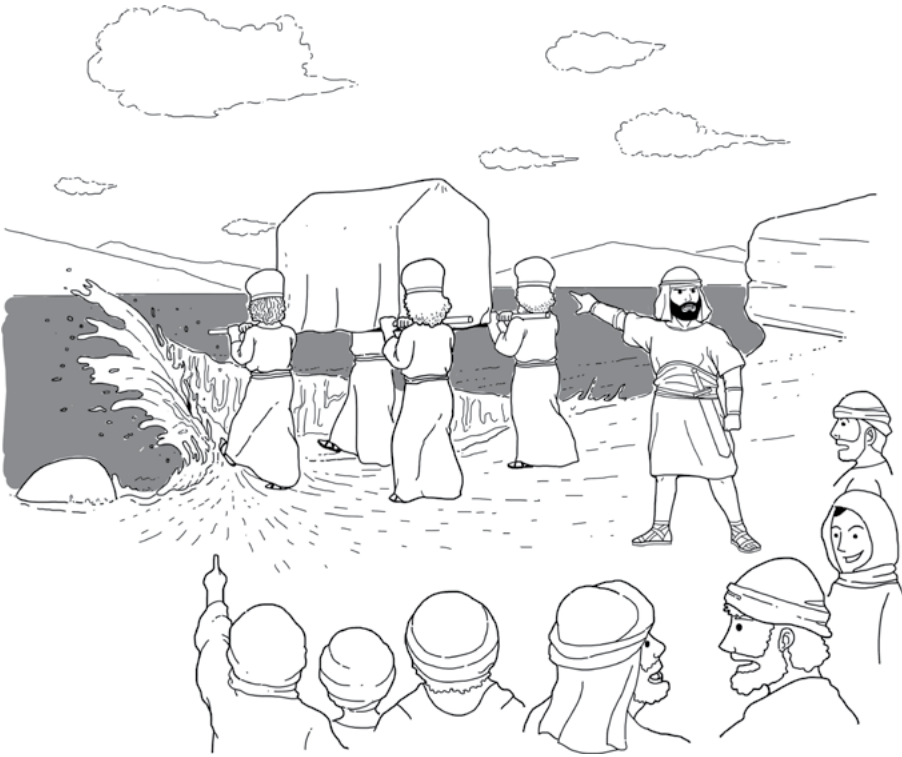
수 3~4장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173장 (내가 어둠 속에서)

오늘 배울



1.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압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압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수 4:22~24)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수 4:24)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the hand of the LORD,
that it is mighty, that you may fear the LORD your God forever. (Js 4:2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당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적어 봅시다 (수 3:7, 4:14, 24).

2 요단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수 3:14~17).

3 출애굽 당시의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출 14:21~31, 수 4:23~24).

구분	홍해	요단강
공통점		
차이점		

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서 적어봅시다(수 4:19~24).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수 3:7

의

수 3:15

화

수 4:18

↑

수 4:24

↑

시 57:2

↑

시 62:11

↑

고후 4:7



지휘권의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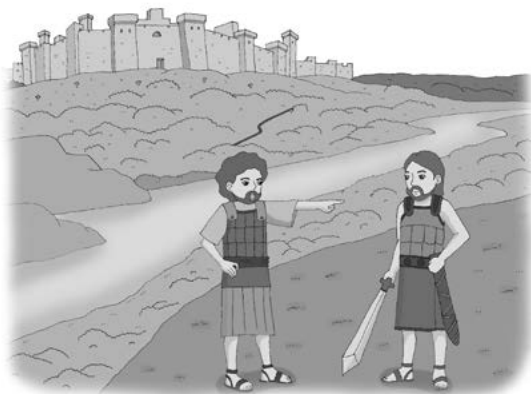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정복하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상한 군인이 검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에게 지휘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이상한 군인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의 발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군대’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이 군대의 지휘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힌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정관, 직업관, 인생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어려운 사건과 역경의 문제들은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6, 9)



질문 있어요~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의 지체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므로 그들을 통하여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셨으며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한 유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충성되며 신실한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전도의 일을 전무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입니다.